

## 전남

목포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대변신

## 주민 운동·쉼터 큰 인기

총 6.2km중 4.2km 구간 공사 마무리…주민 밤길 북적

'제주 올레길'과 '자리산 둘레길'로 대변되는 걷기와 레저문화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에 도 4km에 달하는 명품 산책로 탄생이 임박했다.

목포시는 지난 2007년부터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해 총 사업비 265억 원(국비 100억·시비 165억 원)을 투입해 도심 녹지 네트워크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연동 9호 광장에서 임상 역까지 총 6.2km의 철도 폐선 부지를 5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 중인 이 사업

은 현재 청호공원과 동복포공원, 이로공원은 모두 마무리됐고, 송립공원은 이달 중 개통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잔여구간인 2km가 더해지게 되면 총 연장 6.2km의 도심속 산책 코스가 생겨난다. 이미 완료된 구간은 시민들에게 개방돼 산책은 물론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북적하다. 이곳에 각종 운동 기구가 설치돼 있어서다.

계다가 하당 원형토지, 숲, 장미의 거리, 숲의 거리 등 총 3.4km의 하당

십자형 도시 숲과 연계돼 웰빙 공간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2010년엔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 국비보조 사업 공모에 선정돼 100억 원의 시비를 질감하는 과정을 올려 5.7km에 달하는 마을안길 조성은 물론 철도 폐선부지 웰빙 공원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연동 광장에서 임성역에 이르는 폐선부지가 2014년까지 도시 숲으로 조성되면 목포시는 저탄소 녹색도시 기틀 마련과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취재본부=임충기자 lyc@



목포시민들이 철도 폐선부지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다.

(목포시 제공)

## 함평에 알루미나 생산공장 들어선다

해마루, 학교농공단지에 90억 투자 8월말 완공

순도 99.999%의 고순도 LED 기관 소재공장이 함평에 들어선다.

㈜해마루 머티리얼즈(이하 해마루)는 7일 "함평군 학교농공단지에 연간 생산량 600t 규모의 고순도·고 밀도 알루미니(HPDA) 생산 공장을 10일 착공해 8월 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지 5388㎡, 연면적 4096㎡에 투자금액은 90억 원에 이르며, 40여명의 직원이 상주한다.

LED 기판인 사파이어 웨이퍼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HPDA는 99.999% 이상의 순도와 3.7g/cm³ 이상의

밀도가 요구되며 미국의 EMT만이 동일한 기술사양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해마루는 8년 전에 일반 수산화알루미늄을 이용해 인조대리석의 원료로 사용되는 고백색 수산화알루미늄을 개발한 데 이어 최근 HPDA를 개발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김태룡 대표는 "미국, 러시아 등을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 원가는 4분의 1 수준이어서 국제경쟁력이 있다"며 "내년에 수출 2000만 달러를 포함, 모두 4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벽 때문에 국내에서는 HPDA 개발이 쉽지 않았다.

해마루가 독자개발한 공정은 에너지 비용이 매우 낮아 원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고,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을 가진 사파이어 잉곳(덩어리) 성장으로 따라 맞춤형 알루미니 펠렛(Pellet)을 제공함으로써 사파이어 잉곳 생산 효율을 크게 개선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술개발 대표는 "미국, 러시아 등을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 원가는 4분의 1 수준이어서 국제경쟁력이 있다"며 "내년에 수출 2000만 달러를 포함, 모두 4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룡 대표는 "미국, 러시아 등을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 원가는 4분의 1 수준이어서 국제경쟁력이 있다"며 "내년에 수출 2000만 달러를 포함, 모두 4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축제 준비하는 강진청자

강진 청자박물관 도공들이 7일 초벌구이를 마친 작품을 손질하고 있다. 강진군은 다음달 30일부터 8월 7일까지 '흙·불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제39회 강진 청자축제'를 개최한다.

(강진군 제공)

## 광산구 독자 복지모델 만든다

민·관 복지공동체 '투게더 광산' 출범식

광주 광산구가 민·관 협력을 통해 독자적인 복지모델 구현에 밸브하고 나선다.

광산구와 광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위원장 임승남)는 오는 10일 오후 3시 광산 문화예술회관에서 민·관 공동복지망 '아름다운 복지공동체 투게더 광산' 출범식을 갖는다. '투게더 광산'은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의 장점을

합해 사회적 배려계층을 지원하는 참여와 나눔의 '광산형 복지 모델'이다.

출범식은 기념식,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투게더 광산' 홍보대사 김원중씨의 무대와 째즈 양상을

공연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광주시 공동모금회,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 언론, 의료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 및 공동체 사업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투게더 광산'은 ▲주민참여 활성화 ▲나눔문화 확산 ▲사회적 배려대상 지원 ▲지역공동체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투게더 광산'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

## 강진청자박물관 초·중학생 무료

8월까지…'박물관 노닐기' 사업 대상 선정

강진청자박물관이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박물관 노닐기' 사업 대상 박물관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강진청자박물관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20명 이상 단체 관람료와 체험비 등을 합쳐 1인당 4천원까지 KB국민은행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박물관 노닐기'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박물관 관람 및 체험 기회를 주고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KB국민은행과 한국박물관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한다.

지난 1997년 9월 문을 연 강진청자박물관은 우리나라 청자의 변화과정

과 청자유물 및 가마터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주제 박물관으로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장, 시청각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고려청자를 재현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에서는 우리나라 청자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으며 직접 청자를 만들어보는 코일링, 모자이크, 물레성형, 조각체험 등 다양한 체험코스도 마련돼 있다.

관람을 원하는 단체는 한국박물관협회 홈페이지(www.museum.or.kr)를 통해 신청하면 관람료 등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청자박물관(061-430-3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 목포대 천일염 사업단

## 8개업체 기술이전 계약

목포대 천일염 및 염생식물산업화 사업단은 최근 대상·신안 천일염(주) 등 8개 업체와 10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이전 기업은 대상·신안 천일염(주)을 비롯해 청수식품(주), 영진 그린식품(주), 태평염전, 태평소금(주), (주)세화, 신화파스칼(주), (주)에이스코리아 등 8개업체이다.

사업단은 기술이전 계약체결에서 제시된 다양한 기업의견을 수렴해 5차년도 기술개발 목표에 반영함으로써 최종 계획을 확정하고,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상품화를 적극 추진해 지역기업의 매출증대와 산업화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장성 황룡장 살리기

## 거리 공연·이벤트…

장성군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거리공연을 추진한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침체돼 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황룡장이 열리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매달 한차례씩 황룡시장 상인회의 주관으로 황룡시장 거리공연을 실시한다.

거리공연은 시장 곳곳에서 각설이들의 입담을 자랑하는 신명나는 풍바공연을 비롯해 가수공연, 장터 노래자랑, 색소폰 연주, 짬짜 경매 등의 이벤트로 진행된다.

군은 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가 판매물을 경품으로 적극 활용하고, 황룡시장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온누리상품권 등을 이와 연계해 시장의 매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침체돼 가는 지역



상가의 활성화는 물론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불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해 황룡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매달 4일 열리는 거리공연으로 황룡시장이 옛 명성을 되찾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즐거운 시장거리 조성과 장성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 대인동삼일부동산

##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61)333-7077  
010-3153-4242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 중앙공인중개사

## ♣ 상가건물

☆ 보증금 : 10억원 월세 : 4,30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 73억원

☆ 보증금 1억 월세 2,400만원(부가세별도)

오피스텔 매매가 : 32억원

☆ 보증금 : 8억2천 월세 : 1,33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 28억원

☆ 보증금 : 1억1천 월세 : 350만 매매가 : 6억7천

## ♣ 전원주택

☆ 광산구 오운동 대지 : 322㎡ 건물 : 95㎡

매매가 : 5천만원

☆ 광산구 오운동 대지4,926㎡ 건물 : 66㎡

매매가격 : 2억3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대 : 1,330㎡ 건 : 60㎡

매매가 : 2억8천만원

☆ 담양군 수복면 궁신리 전원주택단지 내

대지654㎡ 매매가 : 1억2천8백만원

## ♣ 대지·전·집·임야

☆ 치평동 대지 : 370㎡ 매매가 : 13억5천

☆ 북구 운암동 프린스호텔옆 35M도로집

대지 677㎡ 매매가 : 5천당 3백만원

☆ 입출동 정착촌마을 대 : 3,600㎡ 매매가 : 4억9천

☆ 광산구 옥동(평동) 주거지역 1,438㎡

(원룸적합) 매매가 : 5천당 20만원

☆ 광산구 우신동 1279㎡ 매매가 : 4,200만원

☆ 장성남면 임야 : 13,500㎡ 매매가 : 4억5천만원

## ♣ 무인모텔

☆ 광산구 우신동 무인모텔 대183평 건500평

객실 32개 매매가 : 15억5천만원.

**062-374-5945**

**010-3162-4989**

## 금당 공인중개사

## ■ 감정가 이하

• 도곡동 주민모텔 객실70 감정48억 대출30억 매도38억

• 쌍촌동 상가·목욕탕·주택 대지 111 감정 367 대출 5억

보증금 2억 3200만원 월세 798만원 매도 10억7천

• 금남로 3가 대로면 건물중의 1층과 2층 109평 감정 15억8천